

토론 돌봄과 안보/안전한 삶

김 엘 리

〈성공회대 NGO대학원 외래교수〉

코로나 시대의 여성노동실태에 관한 발제를 토론하며

발제문은 젠더화된 노동 현상이 코로나 시대에 가시화될 수 밖에 없는 실태를 소개하면서 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는 현실을 짚고, 이보다 나은 사회 노동 현장으로 재편할 정책과 전략을 제시합니다. 탈성장주의를 기반으로 한 돌봄 찬 경제(백영경), 돌봄공공성 확대와 시스템 구축(김현미), 돌봄의 시민성(전희경)을 논하는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논의들은 여성노동현장을 넘어서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인가를 숙고하게 합니다. 발제자가 남긴 사회적 가치의 전환이라는 과제는 젠더 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이 논의의 맥에 있다고 봅니다. 토론은 같은 맥락에서 돌봄의 논의를 안보와 연결시켜 보려 합니다.

1 코로나 시대는 생태정의와 인간-비인간 관계 만들기 위한 실천 과정

- ✓젠더 정의를 위한 새로운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?
- ✓비/대면을 어떻게 어떤 문화로 만들 것인가? - 관계, 소통 방식, 연대 등
- ✓인간중심이 아닌 포스트-휴먼의 젠더 감수성(김애령,2020) 훈련

2 돌봄은 노동현장에서 사회적 원리로

- ✓차별받지 않는 노동조건에만 주목하는 건 부분적 접근
- ✓일-가정 양립, 모성보호만을 전제한 돌봄노동 정책은 한계
→ 일과 삶, 삶의 탈경계화
- ✓가정의 성별분업이 지속되는 한 돌봄의 젠더화된 성격은 전환되지 않음을 : 모두가 노동자이고 돌봄자이다 (Fraser)

코로나 시대에 왜 돌봄을 말하는가?

3 차별구조의 가시화

- 감염은 젠더, 섹슈얼리티, 인종, 계급 등에 따라 움직이고 불평등 구조를 강화한다.
- 코로나라는 공동의 경험은 누구나에게 동일하지 않다.
- 차별과 낙인이 없어야 사회적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. – 사회안전망 강화
- 여성들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: 이주여성, 저소득층의 여성, 몸/성산업의 여성 등

생명(돌봄) 위기 - 돌봄 중요성에 주목

- 재택근무와 돌봄, 교육 의료 분야 공백, 간호사 돌봄노동자의 감염 노출, 고용과 해직
- 감염의 예방과 일상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 : 질 좋은 돌봄(은 방역이다.)
- 경제모델에서 사회적 재생산 모델로 (김현미, 2020)

돌봄의 공공성 확대

- ✓ 돌봄노동이 사회적 서비스가 되어야
- ✓ 생태계회복, 건강, 교육등에 사회적 개입과 투자 증대해야

코로나 시대에 부상하는(해야 할) 가치

- 감염, 전염 : 취약성, 상호의존성, 연결성
- 함께 겪는 이 경험을 통해 취약성, 상호의존성, 연결성을 공동의 것으로

맞돌봄 : 사회를 조직하는 원리, 우리 모두의 것

1 근대적 자아 : 독립성 → 관계성

2 시혜 → 권리, 사회정의

3 여성의 역할, 노동 → 사회적 관계

4 젠더화된 역할 → 사회적 원리

→ 돌봄의 원형이 모-자녀는 아니어야 - 여성들 간의 관계와 수행, 평화운동
노동-병역수행을 통한 이성애 남성중심의 시민권을 재구성해야

- 공동체적 자아, 관계 안의 사람 (김현경, 2014)
-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는 관계에 따라 달라짐
- 누구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수행가능
- 사회정의, 젠더정의
- 상호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사회윤리적 실천 (조한혜정, 전희경 외, 2020)
- 복합성 : 사람이해, 상호소통과 협상, 감정/이성
- 페미니스트 민주적 돌봄 윤리 : 민주주의와 시민권, 책임의 분배 (Tronto, 2014, Young, 2018)
- 페미니즘 평화정치학 : 모성적 사유 (Ruddick, 1989)

코로나 집단경험으로 어떤 전환을 만들 것인가? 안보 * 돌봄

1 건강, 교육 등이 공공재가 되면서 인간안보 대두

- ✓ 재난지원금과 방위예산 감축 (F-35A 스텔스전투기 3000억원, 예비군 훈련 절감액 240억원 등 9047억 감축)
- ✓ 대통령의 인간안보 강조 (건강안보, 남북한의 건강협력 등)
- ✓ 림팩(환태평양연합, RIMPAC) 훈련 등 군사 훈련 규모의 축소
- ✓ 군사력이 우리의 안전함을 지켜준다는 과도하게 경도된 믿음(현실주의)의 실행력 약화, 전염병 예방에 투자

2 국력은 군사력에서 위기 관리능력으로

- ✓ 힘의 균형, 군사력 등 전통적 국력, 안보의 개념은 쇠퇴 (경기연구원, 2020)
- ✓ 위기대응, 시민사회와 정부의 신뢰관계, 시민의 민주성 등이 사회적 자본



출처 : 경향신문, 2020.4.16

3 국가안보가 군사안보가 아닌 국민의 안전한 삶으로

- ✓ 안전한 삶은 무엇인가? – 방역이 안보다! – 질 좋은 돌봄이 안보를 보장한다! 생존권, 건강권 초점
- ✓ 안전한 삶을 위해 돌봄이라는 시스템, 사회적 원리, 관계가 인간안보 작동의 중심에 개입해야
- ✓ 인간안보에서 인간은 추상적 인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젠더 관점을 필요로.

코로나 집단경험으로 어떤 전환을 만들 것인가?

4 비대면 사회를 가져온 기술 발달은 군사기술 발달과 연관

- ✓ 고기술 중심이 될수록 군사영역에는 여성들의 참여가 증대
- ✓ 인간안보의 인지가 높아지고 군사활동외의 미션으로 전환되면 여성들의 군 참여가 증대
- ✓ 여군, 안보여성정치가들의 증가가 제국적 민주주의의 바람잡이 될 소지도.

5 탈군사화 비폭력적 군으로 전환/촉구할 수 있는 전환점: 사회적 돌봄서비스로

- ✓ 탈군사화 비폭력적 군의 활동 - 사회적 공공서비스로 전환
- ✓ 전통적 시민권은 노동과 병역의무가 주요한 축 → 돌봄
- ✓ 병역거부의 대체복무제 - 징벌이 아닌 사회적 돌봄서비스로

참조비교 : 한국사회여론연구소 (전국 19세이상 성인1008명, 2018.7) <http://www.ksoi.org/>

-기간: 2년 6개월

-장소 : 복지시설(치매노인, 중증장애인) 42.3%, 치안분야(위험지역 경비, 화재) 21.8%,
정부와 공공기관 9.7%, 특수병원(정신병원) 9.7%, 교정시설 7.3%